# 무수리에서 왕의 여자, 그리고 왕의 어머니로…

## 19대 숙종의 후궁 숙빈 최씨-소령원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다'란 말이 있다. 페미니스트에게 칼 맞을 소리지만 궁녀들의 삶은 그 속담에 어울린다. 왕의 승은을 입으면 하룻밤 만에 신분이 수직 상승된다. 숙빈 최씨가 그러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더라고.

대궐에 근무하는 궁인들 중 최하급 신분이 무수리다. 상궁들에게 세숫물을 떠다 바치는 일을 한다. 드라마에서는 중전, 후궁, 그들을 모시는 상궁의 모습만 보여준다. 무수리가 주연이 될 이유가 없다. 궁녀가 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일지는 몰라도 개인의 삶은 처참하다. 주로 가난한 백성의 딸들이 열 살 이전에 궁에 들어와 애기나인이 되고 엄한 훈련을 거쳐 15년 정도 되면 나인이 된다. 이때 관례식 겸 혼례식을 치른다. 신랑은 없고 신부만 있는 이상한 혼례식이다. 가상의 신랑은 당연히 왕이다. 30년 정도 되면 정5품인 상궁이 되어 마마님으로 불린다. 설령 상궁이 되어도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외출, 외박은 꿈도 못꾼다. 밤이 되면 궁궐에 사내라곤 임금뿐이다. 사내구실 못하는 내시들이 있긴 하지만. 궁녀들에겐 처녀 귀신이 되어야하는 미래뿐이다. 병들어 궁녀 역할 못할 지경이거나 사건에 연루되어 쫓겨나야 출궁할 수 있다. 궁녀에게 사직서는 없다.

최씨는 일곱 살에 궁에 들어와 궁중 법도를 익히며 무수리로 지내다가 스물네 살에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았다. 대궐을 거닐던 숙종의 시선이, 수십 명의 궁녀들 틈에 섞인 그녀에게 꽂혔다. '저 아이를 오늘 밤 침전에 들게 하라!'는 어명이 떨어졌다. 이 한마디는 궁녀들에게 기절초풍할 정도의 복음이다. 로또 당첨보다 더 어렵고 보상이 더 푸짐하다. 최씨는 후궁이 되었다. 게다가 장희빈을 향한 왕의 애정이 식은 터에, 덜컥 아들까지 낳았다. 그 아들이 영조 임금이다. 후궁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세도가의 딸이다. 무수리 출신이 후궁이 된 경우는 조선 왕조 518년에 최씨가 유일하다.

300년 된 아름드리 전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소령원.

유폐된 생활을 하는지라 궁녀들은 눈치만 발달한다. 권력의 암투에 조연이 되기도 한다. 어느 라인에 서야 일신이 편하고 승진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최대 관심사다. 전하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최씨는 일거에 그것을 얻었다. 장희빈이 무당을 불러들여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굿판을 몰래 벌였다고 고변한 이가 최씨다. 영화를 누렸지만 효성 지극한 아들의 즉위는 보지 못했다.

숙빈 최씨는 숙종 44년(1718)에 49세의 나이로, 영조가 즉위하기 전에 별세했다. 왕실의 법도에 따라 왕비의 무덤인 능에 모셔지지 못하고 묘에 모셔졌다. 효심이 지극했던 영조는 최씨의 무덤 근처에다 시묘막을 짓고 3년간 시묘살이를 했다. 시묘막이라 부르지만 99칸짜리 대저택이었다. 지금은 추춧돌과 담장 일부가 남아 있다. 세자 신분이기에 밤낮으로 무덤가에 기거한 것은 아니고 사람을 대신 보내고 가끔 출퇴근하는 시묘살이로 추측된다. 친필 비와 비각을 4곳이나 세웠다. 현재 두 곳이 남아있다. 비문이 영조의 친필이다. 덤으로 어필을 감상할 수 있으니 소령원 답사는 기쁨 두 배다.

영조는 무수리 출신인 생모에 대한 효심과 열등의식으로 즉위 후 소령묘를 왕비릉으로 격상시키고자 애를 쓰지만, 조정 신료의 반대를 이겨내지는 못했다. '숙빈 해주 최씨 소령묘'라는 친필 비석을 세우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영조는 즉위하던 해인 1724년에 생모를 기리기 위해 경복궁 이웃에 숙빈 최씨의 신위를 모신 사당을 짓고 숙빈묘라 했다. 영조는 사당을 짓고는 직접 제문을 지어 올리며 흐느껴 울었다고 한다. 영조 29년(1753)에는 숙빈묘를 승격시켜 육상궁이라 부르고, 다시 한 번 소령원에 친필 비석을 세웠다. 숙빈 최씨에게 '화경'이라는 시호를 올리고 '조선국 화경 숙빈 소령원'이라는 친필 비문을 새긴 비석을 만들었다. 생모의 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영조가 오열했다는 기록은 실록에 몇 차례나 나온다.

"내 어머니 숙빈 최씨의 신위를 모실 사당을 세워야겠소. 종묘와 똑같은 모양과 크기로 짓도록 하시오! 신분이 낮긴 했어도 과인의 어머니께 그 정도는 해 드려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 신하들은 고민이 되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어명이라 사당을 원래 집터보다 낮게 깎고 공사를 했다. 사당이 완성되자 모양은 똑같은데 왠지 작아 보이는 것이었다. 영조는 약간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종묘와 같은 모양의 사당에 흡족해했다.

정자각 뒤편 금잔디 위에 봉분이 있다.

**소령원(昭寧園)은**
19대 숙종의 후궁이자 21대 영조 어머니 숙빈 최씨의 원소이다. 숙빈 최씨는 최효원의 딸로 1670년(현종11) 11월 6일 태어나 7세에 입궁하여 숙종의 후궁이 되었다. 1694년(숙종 20) 9월 13일 창덕궁에서 영조를 낳았으며 1718년(숙종 44) 3월 19일 춘추 49세로 돌아가 그해 5월 12일 당시 양주땅이었던 지금의 광탄면 영장리에 장사지냈다. 원역은 산기슭 중단부에 동향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봉분 뒤편에 담장을 설치하고 봉분의 양쪽으로 석호·석양을 각각 2필씩 배치했다. 봉분 정면에는 비석, 상석, 향로석, 장명등이 일렬로 놓여 있고 그 좌우로 망주석, 문인석, 석마가 대칭으로 배열되어있다. 석물들이 전체적으로 간략한 형태를 띠고 있고 사각의 장명등 기둥과 석마의 다리 사이가 막혀있는 점등으로 보아 조선후기 석물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원소 아래 동북방으로는 비각 2동이 있으며 동쪽방향으로 중앙에 정자각과 왼쪽에 수복방이 배치되어 있다. 수복방은 조선시대 원소 중 소령원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 진입로 초입에는 숙빈 최씨의 신도비가 보호각으로 보호되고 있다. 사적 358호.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

##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 유일한 무수리 출신의 후궁 아들 영조는 지극한 효심으로 친필 비석 세우기도

사당이 만들어지자 영조는 숙빈 최씨의 신위를 직접 모시려 하였다.

"전하! 후궁의 신위를 직접 모시다니, 아니 되옵니다."

그러자 영조는 노여워하며 일을 강행했다. 상감의 앞을 차마 가로막을 수 없었던 승지(임금의 비서)는 임금의 발을 못 움직이게 했다. 결국 영조는 자신이 직접 신위를 모시는 걸 포기했다. 육상궁은 후에 비빈이 아니면서 왕자를 낳아 궁호를 받은 다른 6명의 신위를 합하여 칠궁이 되었고, 그 옆의 은정동은 뜨거운 샘물이 솟아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영조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여 생긴 샘물이라고 전해진다.

청와대 서쪽 궁정동에 칠궁이 있다. 숙빈 최씨의 신위를 모신 육상궁은 1908년 왕가 추존왕의 생모 5명의 신위들을 모아 봉안하면서 육궁이 되었고 1929년 영친왕의 생모인 엄비의 신위가 더해지면서 칠궁이 됐다. 왕(추존왕 포함)의 생모이면서 대비가 되지 못한 일곱 후궁의 사당이 모여 있는 곳이다.

10·26의 총성과 함께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궁정동의 지명 유래는 이렇다. 궁정동(宮井洞)에는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의 신위를 모신 육상궁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육상궁동'이라 불렀다. 그리고 육상궁동 옆에 온정동이 있는데 이들을 합하여 궁정동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소령원 가기 전 승용차로 5분 정도 거리에 보광사가 있다. 소령원의 원찰이다. 보광사는 원래 신라 진성왕 8년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된 후 고려공민왕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의 중수를 거쳤다. 그러다 임진왜란 때 불 타 없어졌다가 조선 영조 6년에 영조가 생모인 숙빈 최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다시 세웠다. 효심이 지극했던 영조는 절 안에 어실각을 짓고 매월 초 벽제원(중국에서 온 사신들이 묵던 집)에서 뒷박고개를 넘어와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

어실각 앞에는 영조가 심은 향나무가 300년 세월을 지키고 서 있고, 어실각 안에는 숙빈 최씨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대웅보전에는 영조의 친필로 알려진 편액이 걸려 있다.

이름이 많이 알려진 왕릉에는 휴일이면 방문객들로 붐빈다. 그들이 재위 시에 남긴 치적보다 더 훌륭한 업적은 오늘을 사는 후손들에게 좋은 휴식처를 제공한 것이다. 꽃보라가 지천에 흩날리는 봄날, 소령원은 조용하다.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이라 인적이 없다. 그래서 비공개다. 그러나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 청년에게 부탁하니 입장을 허락한다. 적막감마저 감도는 봄날의 소령원, 한 여인의 삶을 추억하고 효심 지극한 그녀의 아들을 추억하니 기분이 흐뭇하다. 시간 넉넉하게 잡아 온다면 좋은 사색의 공간이다. 강하게 추천한다.

한적한 곳에 조용히 누운 무덤 주인은 전생에 선업을 많이 닦은 모양이다. 당신 생전 낮은 신분에서 후궁이 되고 효성 지극한 아들을 두었고, 그 아들은 조선 왕조에서 최장수하며 52년간이나 왕위에 있었으니.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소령원 가는 길**

**대중교통** : 불광동터미널 → 광탄행 339번 일반버스 → 영장리파출소, 슈퍼앞 하차 → 도보로 20분 소요됨
**승용차** : 광탄면 → 유일레져에서 보광사 방면 진행 → 영장 삼거리에서 98번 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좌회전 400m정도 가다 좌측 다리로 진입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 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 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 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500원씩 공급

사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가정 선물로 최고!!

국내주방용품 생산메이커인 (주)신도스텐에서 사찰 공양실과 불자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명품브랜드인 DANI 로 국내주방용품을 석권하고 있는 신도스텐은 사찰에 갈때마다 공양실에서 나오는 수저가 일반식당에서 나오는 저품격 수저와 같아 사찰공양실이 아닌 세상식당에서 먹는것과같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명품DANI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공장도 가격에 공급한다고 했다. 명품수저 "다니"는 일반수저와 달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의료기 만드는 최고급 스텐레스로 제작되었으며 수저 손잡이에는 막힘없는 불사 성공과 불자들의 건강장수를 위해 "반장"을 넣고 공양하는 불자님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별(스타)을 넣어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제작되어 있다. 명품 "다니" 일반수저는 백화점에서 Set에 4,000원씩 판매되고 있으나 사찰과 불자님께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1,500원씩 공급하고 있어 사찰공양실과 불자가정의 뜻깊은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명품수저 DANI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20Set 선물용 30,000원과,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50Set 75,000원, 100Set 150,000원 등 3가지로 포장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 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